

대행선연구원 제2대 원장으로 임명된 직후 가진 기념촬영. 사진 왼쪽부터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 (재)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 권탄준 원장.



2015년 열린 한국불교학회 동계 워크숍에서 권탄준 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강대 주최 한 · 중 · 일 국제학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권탄준 원장.

"보현행원, 화엄 핵심"… 韓불교 실천 나서야

화엄학자로 살아가다

화엄 전공, 성철 스님 주신 화두
"中화엄, 철학적 측면이 강하지만
한반도 '해동화엄', 실천행 강조해"
대행선사 한마음주인공 사상과 상통

한국불교학계에 대한 단상들

금강대 HK 교수 징계 안타까워
인물 연구, 일회성 그쳐선 안돼
불교, 이론 · 구호 아닌 실천 필요

'권탄준 원장'

B1면에서 계속

그렇게 진학한 고등학교였지만 수업보다는 불교에만 관심이 갔다. 고등학생 당시 권탄준 원장의 별명은 '도사' 였다. 실제 그는 진짜 '도인' 이 되고 싶었다. 성철 스님을 찾아가 출가시켜달라고 졸랐으나 스님은 "요즘 세상에는 중도 대학을 나와야 하니 대학 졸업하고 군대 제대하고 오라"고 거절했다. 결국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태백산 각화사에서 2년여 간 행자생활을 했다. 그곳에서 만난 수좌 휴암 스님도 그에게 대학 입학을 권했고, 권탄준 원장은 1972년 동국대 불교학과에 진학하게 됐다.

화엄에서 길을 찾다

권탄준 원장은 동국대 입학 직후 성철 스님을 찾았다. 무슨 공부를 할 건지를 묻기 위해서다. 그의 질문에 성철 스님은 "교(敎)를 하려면 화엄을 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화엄의 근본은 보현행원"이라고 했다. '화엄' 과 '보현행원' 은 권탄준 원장의 평생 연구 과제이자 화두가 됐다.

권탄준 원장은 화엄의 근본 정신은 철학적 교리가 아닌 실천행에 있다고 봤다.

"화엄(華嚴)은 '꽃으로서 부처님을 장엄한다' 는 의미인데 구체적 의미는 아름다운 꽃에 비유할 수 있는 여러 보살행을 실천해 스스로 부처님의 훌륭한 인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참생명을 일깨우는 보살행을 실천함으로써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꽃피워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이유로 권탄준 원장은 중국화엄과 한반도의 해동화엄은 차이가 있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중국화엄은 철학적 · 이론적 · 관념적 성격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화엄사상이라고 하면 관념철학이라고 하는 경향이 많다. 이 같은 성격이 형성된 것은 중국에 〈화엄경〉이 전래된 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철학적 성격이 짙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 중국에서 성립한 종파불교가 종학(宗學)의 사상 체계를 수립하면서 화엄사상이 정리된 것도 한 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해동화엄은 다르다는 게 권탄준 원장의 주장이다. 해동화엄은 관념 철학이 아닌 실천운동이라는 것이다.

"해동화엄의 초조인 의상 스님은 화엄사상의 이론 체계 구축보다는 화엄사상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실천적 성격에 주목해 수행과 교육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해동화엄의 실천적 성격이 꾸준히 이어지게 된 것이죠. 중국화엄이 부처님을 철학적 측면에서 파악 · 설명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면 해동화엄은 부처님을 인격적 측면으로 접근해 자신을 동화하려고 합니다."

학문도 수행도 '실천행'

그는 한국불교가 '실천' 이라는 덕목이 부족하다고 봤다. 부처님이 강조한 것은 "올바른 법을 배우고 법을 바탕으로 실천적으로 살라"는 것이었지만, 현재 한국불교는 부처님 말씀처럼 살고 있지 않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그에게 불교는 실천이다. 학문도 수행도 마찬가지다. 권탄준 원장은 스스로 해이해졌다 싶으면 혼자 또는 부인과 함께 삼천배 수련을 한다. 또한 금강대 개교 때부터 봄 · 가을 학기에 한 번씩 삼천배 대회를 열기도 했다.

또한 한국불교학회장과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원장을 역임하며 불교학의 실천적 과제들을 다뤄왔다. 그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불교학회장을 맡아 △화엄사상과 실천 △불교와 세계종교 △퇴옹 성철의 불교전통 계승과 현대 한국사회 주제의 학술대회 개최를 이끌었다.

"학문은 이론과 구호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불교에 필요한 것은 실천하는 지성들입니다."

최근 들려오는 금강대 소식에는 안타까워했다. 금강대의 인문한국(HK)를 이끌었던 중진학자들이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당장 불교문화연구원이 발행하는 〈불교학리뷰〉에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연구원을 인물 연구 모범으로

이야기는 불교계의 인물 연구로 넘어갔다. 최근 불교계는 문도를 중심으로 한 인물 선양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권탄준 원장은 가르침을 전하고 이를 계승하는 불교의 특성상 인물 연구는 중요한 연구 주제임은 분명하지만, 일회성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사찰과 문도에서 선지식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양 행사를 위해서 이뤄지는 일회성 학술대회는 지양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마음선원이 창립한 대행선연구원은 불교계 인물 연구의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매년 정기 학술대회와 계절발표회 개최, 학술지 발간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행선 연구는 이제 권탄준 원장의 연구 주제가 됐다. 그는 화엄사상과 대행 선사의 한마음 주인공 사상이 상통한다고 봤다.

"스스로의 본성을 보살행을 통해 일깨우는 화엄과 수행과 실천을 강조한 한마음선원의 주인공 · 오공 사상들은 서로 맞닿습니다. 그래서 화엄과 대행사상의 상통점을 연구해 관련 논문을 연구원 학술지 〈한마음연구〉에 게재할 계획입니다."

이제 백발의 노학자는 회향을 준비 중이다. 그 회향은 대행선 연구를 통해 이뤄지려고 한다.

"우선 연구원 학술지 〈한마음연구〉를 등재지로 만드는 것이 우선 과제입니다. 그리고 대행선의 본질적 성격과 정체성을 밝히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행 사상의 핵심을 불자나 시민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권탄준 원장은?

1950년 출생. 중학교 시절 축구선수였지만 감독들 눈에 들지 못하고 결국 고교 입시에 낙방했다. 할머니 49재를 위해 들린 문경 김룡사에서 성철 스님과 만나서 7일간 매일 삼천배를 하며 인생이 변했다. 2년여 행자 생활을 했던 그는 1972년 동국대 불교학과에 입학한 이후 화엄을 전공하는 불교학자로서의 삶을 살았다.

동국대 불교대학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대학원에서 불교학 석사와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을 거쳐 동국대 불교대학원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2003년 금강대 불교학부로 자리를 옮겨 교편을 잡은 그는 대학원장, 불교문화연구소장 등의 보직을 맡았다. 2015년 정년퇴임했으며, 현재는 금강대 명예교수이다. 지난 8월 대행선연구원 제2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 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